

광안대교 차로조정 3→2차로 시행한다

부산시 접속도로 연결공사 공정률은 87% 올해 연말 준공(개통) 예정



부산시 건설본부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의 램프교량 설치 완료에 따라 광안대교(옹호동→센텀시티 방향)' 차로를 오는 30일부터 조정(3→2차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의 일환으로, 광안대교 차로를 조정하는 공사다. 광안대교 차로 조정은 이번에 설

치가 완료된 램프교량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광안대교를 직진 통행(옹호동→센텀시티 방향)하는 차량간 접촉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30일부터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차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조정할 예정이다.

광안대교 센텀시티지하차도 진입 약 1.2km 전방부터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차로를 조정한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교통안

내 전광판 송출, 부산교통방송(TBN)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홍보해 차로 조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의 공정률은 87%로 올해(2025년) 연말 준공(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 장산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우회하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센텀시티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숙 시 건설본부장은“이번 작업은 이번에 설치가 완료된 램프교량과 광안대교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차로 조정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0일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와 하단역을 오가는 「에코누비(econubi) 버스」를 개통한다.

이용우 기자

APEC 경제전시장·K테크 쇼케이스 가동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경제전시장 방문



경상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세일즈의 장이 될 경제전시장을 본격 가동하고, 지역 및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는다. 28일 이철우 도지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과 함께 경제전시장을 찾아 이날 처음 공개하는 k-테크 쇼케이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상, 첨단 신기술 등을 관람했다.

K-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경제전시장 전장에 500평 규모의 파빌리온 돔으로 설치되어 28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미국의 메타 등 대기업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체험관을 운영한다.

전시회에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모빌리티·로봇틱스, 인공지능(AI)·스마트홈, 메타버스·확장 현실(XR) 등을 과시한다.

또 삼성, LG, SK, 현대차와 중소스타트업 5개 기업 정도가 참여해 혁신 신기술 및 제품을 발표, 대한민국 경제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다.

경제전시장에는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이차전지·모빌리티, 반도체, 조선해양, 화장품·바이오, 웹툰·드라마) ▲지역기업관(55개기업) ▲K-경북푸드 홍보관 ▲5韓(한복, 한식, 한옥, 한글, 한지)문화체험관으로 구성해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우수성과 경제의 균진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대 최대 세일즈 경북, 세일즈 코리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바이오, 웹툰, 드라마, 캐릭터 산업도 소개한다. 첨단미래산업관에서는 중소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도내 30개의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제품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CEO Summit에 참석하는 기업인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과 대표단이 관람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주 예술의전당 등 기반 시설 개보수, 수송, 산업시찰·문화관광 프로그램, 특별공연 등 총 4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윤석 기자

거창, 농업근로자 제2기숙사 건립 추진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신축 사업비 24억 원(국·도비 13.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거창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공고 등을 진행했으며 농식품부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거창군을 포함해 전국 5개소가 선정됐다.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4년 9월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거창읍 제1기숙사와 연계해

통해 지역별 분산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가조면 마상리 일원에 건축 연면적 500㎡에 사무실 및 휴게공간을 포함하여 10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제1기숙사와 함께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확대 계획에 따라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인모 군수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맞춰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2024년 9월 준공한 농업근로자 제1기숙사를 현재 운영 중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6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계절근로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북부농협에 내년부터 동거창농협을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은 노후 맨홀 뚜껑에서 열림, 소음, 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맨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100여개 잠금식 맨홀 뚜껑을 교체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연간 투자유치 10조 원 시대 열었다

경제수도 미래산업 중심지 도약…두산에너지빌리티㈜ 등 17개사와 협약



자해 초고압변압기 및 차단기 공장을 증설하고, 현대글로벌비스㈜는 진해 옹동지구에 첨단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진주에서는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와 ㈜에스피에어로가 우주항공국가 산업단지에 신규 투자를 추진해

지역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 부품기업 송월테크놀로지㈜와 ㈜리더인항공이 각각 350억 원,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해 항공산업 집적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최성룡 기자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든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했다

울산 소상공인 위기극복 금융지원, 업체당 보증 한도 최대 6,000만 원

울산시는 28일 '울산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을 활용한 보증서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울산시와 6개 은행대표, 소상공인 대표들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국은행 울산본부, 비엔케이(BNK)울산경남은행, 엔이에치(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울산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식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든 특례보증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저리의 자금을 바탕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6,000만 원 이내이며, 우대한다고

우대금리, 보증료 감면 등 기존 시중은행 협약보증과 비교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금리우대 보증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울산시와 금융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손을 잡은 이번 협약이 향후 지역 맞춤형 협

력사업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울산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공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라며,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협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근 기자

중구-몽골 에르데네트시 대표단, 의료관광 협력강화

건강검진 프로그램 점검 및 협력 논의…양 도시 의료관광 교류 확대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몽골 에르데네트시 밤바다시 조릭트바야르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만나 의료관광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구 중구와 에르데네트시 간 의료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에르데네트시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청을 방문한 대표단은 ▲밤바다시 조릭트바야르 시장 ▲문흐바트 시민대표자회의 의장 ▲보망서르 공화당장 등 3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에르데네트시 공무원 대상 의료관광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에르데네트시는 매년 1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파견해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대구 중구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대구 중구 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중구의 의료관광 프로그램 경쟁력을 확인했다.

에르데네트시는 몽골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 약 208㎢, 인구 약 10만 명 규모이며, 수도 울란바토르에 이어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에르데네트시와의 의료관광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상생 발전과 의료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28일 전라남도 구례 일원에서 202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타운홀미팅 후속조치 논의…실현가능한 방안 마련해

했다.

또한 섬유와 환경산업 등 대구의 전통 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거점 AX 기술 개발사업의 지역기업 주도,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등 새로운 사업들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침묵단지 입주 기업, 청년 창업자,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하도 상가 상인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

으로 나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하고, 대통령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대통령실 및 정부 부처와 협의 창구를 구성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대구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기 권한대행은 28일

동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주재했다.

올해 훈련은 지난 4월 합치산 산불처럼 도심 인근에서 초고속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산불과 그로 인한 다중이용시설(DGIST 학술정보관) 화재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사태 수습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뒀다.

한윤석 기자